

小有亭歌(소유정가)¹⁾

朴仁老(박인로)

琴湖江(금호강)²⁾ 느린 물이 十里(십리) 밖의 구비지어
之玄(지현)³⁾ 乙字(을자)로 白沙(백사)의 빗끼 흘러
天丈 絶壁下(천장 절벽하)의 萬族淵數(만족연수)⁴⁾ 되얏거든
琵琶山(비슬산)⁵⁾ 흐 활기 東(동)다리로 버디 내려
가던 龍(용)이 어머는 듯 江頭(강두)에 두렷거늘
小有亭(소유정) 두세 間(간)을 바회 지켜 여러 내니
蓬萊(봉래)⁶⁾ 仙閣(선각)을 새로 옮겨 내어온 듯
龍眠(용면)⁷⁾ 妙手(묘수)인들 이곳치 그럴런가
岳陽樓(악양루)⁸⁾의 비친 들이 흐 비츠로 불가시니
其兄其弟(기형기제) 아미건 줄 모르노라⁹⁾
滕子京(등자경)¹⁰⁾ 사라던 들 必然(필연) 한번 드틀렀싸
엇그제 이 勝地(승지) 늬의 손되 앓겼더니¹¹⁾
天運(천운)이 循環(순환)하야 舊主(구주)에 도라오니
山河(산하)는 依舊(의구)하고 景物(경물)이 새로왓싸
鏡面 鷗鷺(경면 구노)는
繼世逢(계세봉)¹²⁾이 되얏고야
어리고 拙(줄)흐 거시 므슴 志趣(지취) 이시리마는
地靈(지령)¹³⁾이 그러흐 지 天性(천성)이 늬과 달라
一釣竿(일조간) 밖의 萬事(만사)의 쓰지 업서
花朝 月夕(화조월석)의 吟詠(음영)을 일을 삼아
滿目(만목) 湖山(호산)¹⁴⁾의 景致(경치)를 슬퍼보니
千態萬象(천태만상)이야 아마도 만타마는

금호강 흐른 물이 십 리 밖에 구비 되어
꾸불거리며 을 자로 모래밭에 빗겨 흘러
천길 절벽 아래 못 물고기 모이듯이
비슬산 한 줄기 동쪽으로 뻗어 있어
가던 용이 머무는 듯 강나루에 둘렀거늘
소유정 두세 칸을 바회 기대어 열어 내니
봉래산 선각을 새로 옮겨 내어온 듯
용면의 솜씨인들 이같이 그럴런가.
악양루 비친 달과 한 빛으로 밤았으니
늬 형인지 늬 아우인지 아무도 모르노라.
등자경이 살았던들 필연 한번 다투었으리.
엇그제 이 경치를 남의 손에 빼앗기더니
천운이 다시 바뀌어 옛 주인에 돌아오니
산하는 옛 그대로이고 경치는 새로웠다.
물 위를 날아가는 갈매기와 해오라기
계세봉이 되었구나.
어리석고 못난 것이 무슨 뜻이 있으리마는
땅 신령 때문인지 천성이 남과 달라
냇숫대 하나 밖엔 다른 일에 뜻이 없어
아침 꽃과 저녁달에 시 읊기를 일을 삼아
눈 가득 호산의 경치를 살펴보니
천만 가지 모습이야 아마도 많다마는

1) 작자가 대구의 소유정(小有亭)에 머물 때, 소유정의 주인인 채선길(蔡先吉)의 청으로 부른 가사로 전해짐. 박인로의 작품이 아니라 다른 이가 작자의 '사제곡' 등의 다른 가사를 본받아 지었다는 설도 있음.

2) 낙동강의 지류.

3) 풍수지리에서 용(龍)이 입수(入首)하려는 데서 꾸불거리는 현상.

4) 못에 물고기가 모여들고 숲에 새와 짐승이 모여드는 것처럼 여러 사물이나 사람이 모임.

5) 경북 달성과 청도의 경계에 있는 산.

6) 중국 전설에서 나타나는 삼신산(三神山)의 하나로 신선이 살고 불로초와 불사약이 있다고 함.

7) 중국 북송 후기의 사대부 화가.

8) 중국 호남성에 있는 성루.

9) 소유정의 아름다움이 악양루보다 못하지 않다는 의미.

10) 범중엄(范仲淹)의 친구로 악양루를 중수하였음.

11) 왜란 당시의 왜군에게 빼앗김.

12) 소유정 근처의 봉우리.

13) 땅의 신령스러운 기운.

14) 소유정 근처의 봉우리.

范希文(범희문)¹⁵⁾ 업거든 뉘라서 다 끌런고
썰 이도 업스니 혼자 볼 뿐이로다
午酒(오주)이 初醒(초성)커를 낯대를 둘러메고
任意(임의) 逍遙(소요)하야 釣臺(조대)에 건너오니
山雨(산우)는 잠간 개고 太陽(태양)이 썩으논듯
江風(강풍)이 더디오니 鏡面(경면)이 더욱 맑자
洛水 伊川(낙수 이천)¹⁶⁾인들 이곳치 물글런가
깊은 돌이 다 보이니 고기 數(수)를 알리로다
고기도 낚치 니거 나를 보고 반기는가
놀낼 줄을 모르거든 차마 어이 낚을소니
罷釣(파조) 臨淵(임연)의 魚共樂(어공락)¹⁷⁾이 버지 되야
雲影 川光(운영 천광)¹⁸⁾이 어리어 썩러지니
於刃 魚躍을(어인어약)¹⁹⁾
구름 속에 보아괴야
一般 清意(일반 청의)²⁰⁾를 놀더려 議論(의논)홀고
말업슨 孤鷺(고목)이 落霞(낙하) 齊飛(제비)²¹⁾ 썩이로다
하물며 八公山(팔공산) 건너보니 노프락 느즈락
峭壁(초벽) 鑛峯(찬봉)²²⁾이 날 위하야 버러는 듯
넙거든 기지 마나 길거든 넓지 마나
白練(백련) 萬丈(만장)을 굵긋치 채뽀는 듯
富春(부춘)²³⁾ 形勝(형승)인들 이 江山(강산)의 밑출런가
山回 水曲(산회 수곡)이 견흔 되 너야 업다
各別(각별)한 仙界(선계)라 人間(인간)이 아닌 듯자
古往 今來(고왕 금래)에 英雄豪傑(영웅호걸)이 만히도 지낸마는
天慳 地秘(천간 지비)하야
나를 주려 남과뎡자
드토리 업스니 나만 두고 즐기로다
仁者樂山(인자요산)과 知者樂水를(지자요수)
엇지 닐온 말씀인고
無狀(무상)호 이 몸이 仁智(인지)를 알랴마는
山水(산수)에 癖(벽)²⁴⁾이 지니 늘글소록 더어간다

범희문 없는데 뉘라서 다 쓸 것인가.
썰 이도 없으니 혼자 볼 뿐이로다.
낯술에서 막 깨어나서 낚싯대를 둘러메고
마음대로 거닐면서 낚시터로 건너오니
산비는 잠간 개어 햇별을 내리쬐니
강바람이 더디오니 수면이 더욱 맑다.
낙수 이천인들 이같이 맑을런가.
깊은 돌이 다 보이니 고기 수를 알리로다.
고기도 낚치 익어 나를 보고 반기는가.
놀랄 줄을 모르거든 차마 어이 낚을 손가.
낚시 마치고 물가 앉아 물고기와 벗이 되어
구름 그림자 하늘빛이 어리어 떨어지니
물고기 뛰어오르고 솔개가 날아감을
구름 속에서 보는구나.
이 청아한 즐거움을 누구와 의논할까.
말 없는 오리 하나 노을에 날 뿐이로다.
하물며 팔공산 건너보니 높은 듯 낮은 듯
벼랑에 꿇긴 찬봉이 날 위하여 벌렸는 듯
넙거든 길지 말지 길거든 넓지 말지
흰 명주 만 길이나 끝끝마다 펼쳤는 듯
부춘의 풍경인들 이 강산에 미칠런가.
산을 돌아 물이 굽어 견줄 데 전혀 없다.
각별한 신선 세계 인간 세상 아닌 듯해
예로부터 지금까지 영웅호걸 많았지만
하늘이 아끼고 땅이 감추어
나를 주려 남겼도다.
다들 이 없으니 다만 나만 두고 즐기도다.
어질면 산이 좋고 지혜로우면 물 좋다 하니
어찌 이른 말씀인가.
보잘것없는 이 몸이 인지를 알랴마는
산수에 벽이 있으니 늘글수록 더해간다.

15) 범중엄. 중국 북송 때의 정치가·학자로 악양루기(岳陽樓記)를 씀.

16) 낙수는 중국 하남성에 있는 황하의 지류이며, 이천은 낙수의 지류로, 송나라의 유학자 정이(程頤)가 학업을 닦던 곳.

17) 물고기와 함께 하는 즐거움.

18) 天光인 듯.

19) 魚躍于淵인 듯.

20) 月到天心處 風來水面時 一般清意味 料得少人知 (월도천심처 풍래수면시 일반청의미 요득소인지), 달이 중천에 떠 있고, 바람이 수면에 일 때, 이렇게 청아한 뜻을, 아는 이 적음을 알았노라. - 소옹(邵雍), '청야음(淸夜吟)'

21) 노을 속에 가지런히 날아감.

22) 소유정 근처의 봉우리(?).

23) 중국 후한 광무제의 옛 친구였던 엄자릉(嚴子陵)이 숨어 살던 곳.

저 귀훈 三公(삼공)과 이江山(강산)을 밋쓸소나
이러고 미친 마음 우으리 만타마는
아무리 우어도 나는 죠히 녀기노라
爰居 爰處(원거원처)²⁵⁾하다 恒産(항산)인들 얼머치리
野老(야노)生涯(생애)를 만타야 홀가마는
追遠(추원) 奉祭祀(봉제사)나 誠敬(성경)으로 닐원 後(후)의
이시면 粥(죽)이오 업스면 굴물만정
그 밋씨 남안 일을 저그나 불알소나
無思 無慮(무사 무려)하야 이江山(강산)의 누어시니
뉘라셔 世上(세상) 일은 듯도 보도 못하로다
花開 葉落(화개 엽락) 아니면 어너 節(절)을 알리런고
梅窓(매창)의 곶피거늘 새 봄을 貴景(귀경)하랴
靑藜杖(청려장) 빗겨 쥐고 童子(동자)를 불러내어
압서썩락 뒤썩락 五五 三三(오오 삼삼)이
李杜詩(이두시)²⁶⁾를 섯거 읊고 습닙 난 잔되에
足容重(족용중)²⁷⁾케 훗거려 淸江(청강)의 바를 뺏고
訪花 隨柳(방화수류)하여 興(흥)을 타고 도라오니
風乎(풍호) 詠而歸(영이귀)인들
이 興(흥)에 더을손가
春興(춘흥)이 이러커든 秋興(추흥)이야 저글소나
金風 一陣(금풍 일진)이 庭畔(정반)의 지나 부러
지는 머피 혼 님피 새 ㅁ을 알외느다
張翰(장한)의 江東去(강동거)²⁸⁾도 오늘날 아니런가
正值(정치) 秋風(추풍)이 반가와도 보이느다
斗酒(두주)를 드나 쓰나 瓶(병)째 메고 버들 불너
隔岸(격안) 漁村(어촌)애 내노리 가자쓰라
白接離(백접리)를 젓쓰고 小艇(소정)을 타고 오니
브람의 즈친 蘆花(노화) 갠 하늘래 눈이 되어
斜陽(사양)의 눅피 느라 어저러이 썩리는데
굴닙페 닳틀 노코 蠶吐(잠토)짖 그물의
결잔 긴 江(강)의 紫鱗銀湑(자린은순)을
數(수)업시 자바너여

저 키한 삼정승과 이 강산을 바꿀 소나.
이렇게 미친 마음 웃을 이 많다마는
아무리 웃어도 나는 좋게 여기노라.
이리저리 옮겨 사니 가진 것이 얼마이리.
시골 늙은이 남은 생애 많다야 할까마는
조상 그리며 제사를 정성껏 지낸 후에
있으면 죽이요, 없으면 굶을망정
그 밖에 남은 일은 조금이나 바랄 소나.
아무 걱정 근심 없어 이 강산에 누웠으니
뉘라셔 세상일은 듣고 보도 못하리라.
꽃피고 잎 지지 않으면 어찌 계절 알 것인가.
매창에 꽃 피거늘 새봄을 구경할까.
청려장 빗겨 쥐고 동자를 불러내어
앞서거니 뒤서거니 삼삼오오 모였다가
이백 두보 섞어 읊고 속읊 난 잔디 위에
조심스레 흘 걸어 맑은 강에 발을 씻고
꽃을 찾고 버들 따라 흥을 차고 돌아오니
바람을 쐬고 시 읊으며 돌아오니
이 흥에서 더할 손가.
봄 흥이 이러거늘 가을 흥이야 적을 소나.
가을바람 한 무리가 뜰 가에서 지나 불어
지는 오동잎 한 잎으로 가을을 알리노다.
장한이 강동감이 오늘날 아니런가.
마침 부는 가을바람 반가워도 보이누나.
말술을 다나 쓰나 병째 메고 벼를 불너
언덕 사이 어촌으로 나들이 가자스라.
흰 두건을 젓혀 쓰고 작은 배를 타고 오니
바람에 지친 갈대꽃 갠 하늘에 눈이 되어
노을에 높이 날아 어저러이 뿌리는데
갈잎에 닳을 놓고 누에 토한 그물로
잔잔한 물결 긴 강에서 금빛 비늘 은빛 주둥이
수 없이 잡아내어

24) 고치기 어렵게 굳어 버린 버릇.

25) 爰居爰處 爰喪其馬 于以求之 于林之下(원거원처 원상기마 우이구지 우림지하) 이곳저곳 돌아다니다 머물던 곳에서 타던 말까지 잃어버려 어디 갔는지 모르는구나. 어디 가서 말을 찾을까, 숲 아래를 헤매이네. - “시경(詩經)” ‘패풍(邶風) 격고(擊鼓) 편’.

26) 이백(李白)과 두보(杜甫)의 시

27) 발을 무겁게, 행동거지를 조심스럽게

28) 張翰江東去(장한강동거) 正值秋風時(정치추풍시), 장한이 멀리 강동으로 떠나가니 마침 가을바람에 낙엽 지는 계절을 맞았구나. - 이백(李白), ‘송장사인지강동(送張舍人之江東)’. 장한(張翰)은 중국 진나라 사람으로, 왕이 대사마(大司馬)를 삼았으나 가을바람이 불자 고향의 농어회가 그리워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함.

蓮(연)넙께 다문 鱸(회)과 醢瓶(병)의 취운 술을
厭(염)복토록 머근 後(후)의
苔磯(태기) 너른 돌애 눕피 베고 누어시니
羲皇 天地(희황 천지)²⁹를 오늘 다시 보아괴야
저근듯 줍드러 欸乃聲(애내성)의 썩드르니
秋月(추월)이 滿江(만강)하야 밤비출 일허거늘
半醉 閑吟(반취 한음)³⁰하고 船上(선상)의 건너오니
波底(파저)의 잠긴 달은 쏘 어인 달인 게오
들 우회 비를 타고 들 아래 안자시니
문득 疑心은 月宮(월궁)의 올라는 듯
物外 奇觀(물외 기관)이 춤남하야 보이느다
淸景(정경)을 드토면 내 分(분)에 두라마는
取之 無禁(취지무금)³¹이라 나만 둔가 녀기노라
놀기에 貪(탐)하야 도라갈 줄 니졌덧차
아히야 닷 드러라 晚潮(만조)애 썩여 가자
淸菰(청고) 葉上(엽상)의 江風(청풍)이 짐짓 니러
歸帆(귀범)³²을 뵈야는 듯
아득던 前山(전산)이 忽後山(홀후산)의 보이느다
須臾羽化(수유우화)³³하야 蓮葉舟(연엽주)에 올라는 듯
烟波(연파)를 헤치고 月中(월중)의 도라오니
東坡(동파) 赤壁遊(적벽부)인들 이 내 興(흥)에 미칠런가
江湖 興味(강호 흥미)는 나만 둔가 녀기노라
堯明 聖世(요명 성세)에 巢許(소허)³⁴도 아닌 거시
白首 生平(백수생평)의 이 名區에 넘재 되야
봄이라 이리하고 又올이라 그러하니
此間 眞樂(차간 진락)이 布衣極(포의극)³⁵ 아닐소나
이 江山(강산) 뉘 짜고 聖主(성주)의 짜히로쇠

연잎에 담은 회와 질병에 채운 술을
싫도록 먹은 후에
이끼 낀 넓은 돌을 높이 베고 누웠으니
복희씨의 세상을 오늘 다시 보는구나.
어느덧 잠이 들어 뱃노래에 깨어나니
가을 달이 강에 내려앉아 밤빛을 잃었거늘
반쯤 취해 시 읊으며 배 위로 건너오니
물결 아래 잠긴 달은 또 어인 달인 게오.
달 위에 배를 타고 달 아래 앉았으니
문득 의심하기를 월궁으로 올라간 듯
세상 밖 기이한 풍경 참람하게 보이누나.
정경을 다툰다면 내 분수로 두라마는
임자 없어 금하지 않아 나만 둔가 여기노라.
놀기를 욕심내어 돌아갈 줄 잊었도다.
아이야, 닷 들어라 만조에 띄어 가자.
푸른 줄풀 앞 위로 강바람이 짐짓 일어
뚝 달고 돌아가기를 재촉하는 듯
아득하던 앞산이 홀연 뒷산에 보이누나.
잠깐 사이 깃이 나서 연잎배에 올랐는 듯
안개 물결 헤치고 달 가운데로 돌아오니
소동파 적벽부인들 이내 흥에 미칠런가.
강호의 흥미는 나만 둔가 여기노라.
요 임금 태평성대 소부 허유 아닌 것이
흰 머리 한평생으로 이곳의 임자 되어
봄이라 이리하고 가을이라 그러하니
이 사이의 즐거움이 벼룩이 아니겠나.
이 강산은 뉘 땅인가, 성주의 땅이로세.

29) 복희씨(伏羲氏). 중국 고대 전설상의 제왕으로 팔괘를 처음으로 만들고, 그물을 발명하여 고기잡이의 방법을 가르쳤다고 함.

30) 落花流水認天台 半醉閑吟獨自來 惆悵仙翁何處去 滿庭紅杏碧桃開 (낙화유수인전대 반취한음독자래 추창선옹하처거 만정홍행벽도개), 꽃이 떨어지고 물이 흐르니 세상 넓음을 알고, 술에 반쯤 취하여 한가하게 시 읊으며 홀로 왔다네. 슬프게도 선옹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고, 붉은 살구꽃과 푸른 복숭아꽃만 활짝 피어 뜰에 가득하네. - 고변(高駢), '방은자불우(訪隱者不遇)'

31) 임자 없는 물건을 마음껏 가져도 말리는 사람이 없다

32) 멀리 나갔던 뚝단배가 돌아옴

33) 縱一葦之所如 凌萬頃之茫然 浩浩如馮虛御風 而不知其所止 飄飄如遺世獨立 羽化而登仙 (종일위지소여 능만경지 망연 호호호여풍허어풍 이부지기소지 표표호여유세독립 우화이등선), 한 조각 작은 배 가는 대로 내어 맡기고 망망한 만경창파를 건너간다. 넓고 넓은 것이 허공을 타고 바람을 모는 듯, 그 머무는 곳을 모르겠고 가벼이 떠올라 속세를 버리고 우뚝 서 있는 듯, 날개 돋아 신선이 되어 하늘을 오르는 듯하다. - 소동파(蘇東坡), '적벽부(赤壁賦)'

34) 소부(巢父)와 허유(許由). 중국 고대 전설상의 성군 요(堯)임금 때 살았다는 사람들로 허유는 요 임금이 자기에게 보위를 물려주려 하자 귀가 더럽혀졌다고 영천(潁川)에서 귀를 씻은 후箕山(箕山)으로 들어가서 은거하였고, 소부는 허유가 귀를 씻은 영천의 물이 더럽혀졌다 하여 물고 온 소에게 마시지 못하게 하였다고 함.

35) 벼룩. 벼슬하지 않은 선비.

聖主(성주)의 臣子(신자)를 뵈죽도 헛다마는
이 몸이 어리거든 稷摯(직설)³⁶⁾이 되리런가
太平 文教(태평문교)에 모다 버린 사람 되어
秋月(추월) 春風(춘풍)의 是非(시비) 업시 누엇씨야
아마도 이 몸이 聖恩(성은)도 罔極(망극)홀사
百番(백번)을 주거도 가플 일이 어려워라
窮達(궁달)이 길히 달라 못 피웁고 물려서도
犬馬微誠(견마미성)³⁷⁾은 갈수록 새롭는다
平生(평생)에 품은 뜻을 비노이다 하느님께
北海水(북해수) 여위도록 聖主 萬歲(성주 만세)쇼셔
堯天 舜日(요천 순일)³⁸⁾을
每每(매매) 보게 삼기쇼셔
億兆 生靈(억조 생령)을 擊壤歌(격양가)³⁹⁾를 불리쇼셔
이 몸은 이 江亭風月(강정풍월)의
늪을 뉘를 모르리라

성주의 신하됨을 씀 직도 하다마는
이 몸이 어리석어도 직설이 되리런가.
태평시대 가르침에 모두 버린 사람 되어
가을 달 봄바람에 시비 없이 누엇구나.
아마도 이 몸이 성은도 망극할 사.
백번을 죽어도 갚을 일이 어려워라.
부기함의 길이 달라 못 모시고 물려서도
임금 향한 작은 정성 갈수록 새롭구나.
평생에 품은 뜻을 비나이다, 하느님께.
북해수 마르도록 우리 성주 만세 누리소서.
요 임금의 하늘과 순 임금의 해를
매번 보게 해 주소서.
수많은 백성들이 격양가를 불게 하소서.
이 몸은 강가의 정자에서 풍월 읊으며
늪을 줄을 모르리라.

36) 나라의 중요한 신하

37) 개와 말이 사람을 충성스럽게 섬기듯이 임금님을 섬기고자 하는 작은 정성.

38) 요순시대와 같은 태평성대

39) '땅을 치며 노래한다'는 뜻으로 요 임금 때의 태평세월을 의미함.